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말씀 : 마태 복음 8:18-34

요절 : 마태 복음 8: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은 세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각오와 삶이 자세를 가르치신 사건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산상수훈 후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산상수훈을 들으며 예수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병환자와 중풍병, 열병 등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린자도 쫓아내 주시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 머물며 쉼과 안식을 누릴 여유조차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쉼과 안식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삶의 끝은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배척, 멸시와 조롱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 좁은문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그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것은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1. 삶(8:185-22)

18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린자와 병든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체험하자 우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막 부흥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곳을 떠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율법학자출신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바로 본업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다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안식처 없이 사시는 예수님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로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고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렸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때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와~ 어디든지 따르겠다니 그의 결단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도 아니고, 유대사회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가방꾼도 길고 스마트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 환영파티라도 열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기관의 결단을 물리치시는듯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어부들만 제자로 받아주다 보니 서기관이 부담스러워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서기관은 아마도 예수님의 병고치는 능력을 보고 그러한 인기에 편승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따르지 말라고 제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명인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은 어디 한 곳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고생하고 희생하며 안식처 없이 사시는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은혜를 받고 잠깐 즐거워하다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부담을 느끼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닌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때로는 사명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느라 세상에서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피곤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보화 되신 예수님을 닮고 배우는 진정 복된 삶이며, 우리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서기관의 요청을 쿨하게 물리치신 것을 보고 제자 중 하나가 이때다 싶어 예수님에게 나아와 자신도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죽은지 24시간

매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례의 모든 의식은 장남의 의무였으며, 다른 어떤 헌신보다 장례가 가장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자의 요청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자는 본문의 장사를 둘째 매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처음 죽어서 매장 한 후에 1년이 지난 유골을 납골당으로 옮기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는데, 이때의 두번째 매장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보면 최소 수개월 이상으로 제자 신분을 연기하겠다는 요청입니다. 서기관에게 까칠하고 쿨하게 대답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온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예수! 이번에는 장례도 못치르게 하다” “인간 윤리도 외면하는 비 상식의 종교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게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효자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어찌 이리도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 제자에게 부친의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생활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서 자식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리고 ‘죽은 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가 있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인간적인 관계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수많은 관계들로 얽혀 있습니다. 가족, 학교, 직장, 친구, 취미생활 등... 학생들은 학교생활, 학사님들은 직장생활에서 맺어가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성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과 일이 충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둘을 잘 조정하여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제자의 부르심을 먼저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뺏어갈 명분들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나면 어머니 장례도 있고, 장례식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있고, 회식도 있고, 중요한 모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성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뒤로 미룬다면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상황과 조건문제와 연결시켜 놓으면 우리는 젊음이 다가도록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제자의 부르심을 앞세우고자 결심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장례는 그들의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앞의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뒤의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죽은 자, 곧 죽음에 속해서 죽음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아닌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 그가 사는 세계가 달라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의 가치를 알고 이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빛나는 ‘제자생활의 가치’를 알고 이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제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알고 그것을 앞세우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자기가 제자로 살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이 자신의 스펙을 내세워서 제자로 살고 싶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가르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7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끌어 주신 7명의 제자들이 목동 목자로 선서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예년과 달리 4주의 정규교육과정도 밟게 됩니다. 이번주부터 시작하는 목동 목자교육을 통해 이 분들이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는 UBF의 목동 목자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제자의 삶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가져야 할 믿음(8:23-27)

18절에서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 상태였습니다. 배에 오르시매 전직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아무 걱정마시라고 예수님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바다는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고 배가 물결에 잠기에 되었습니다. ‘큰 놀’은 아주 사나운 풍랑을 말합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배 안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가 익숙한 어부들이었는데 큰 놀과 바람앞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을

. 예수님을 찾고 보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121:4)고 했는데 예수님은 배가 침몰하는데도 열외되어서 물도 한번 안푸시고 혼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열폭할수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공포에 질린 듯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광풍에도 태연하게 주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구에 잠을 깨셨습니다. 사색이 된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미친 듯이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점을 책망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신과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도록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힘든 현실과 상황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주님의 강한 책망의 음성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광풍 같은 현실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만 예수님이 손 놓고 주무시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상황을 위해 아무 것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신 것 같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고 주님을 향해 원망이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겉으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의심과 회의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해 일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의하고 불신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항로를 가다보면 광풍 같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에 만나거나 중요한 시험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 문제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죄와 죽음문제를 정면으로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광풍처럼 밀려옵니다. 그런 두려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잃고 절망 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바다 한가운데서 캄캄한 밤중에 외로이 광풍과 사투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제자들에게 광풍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도록 하십니다. 광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소심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영적 분별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작은 점시 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말처럼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안일과 염려에 넘어가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들어 절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람 끝에 선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생 풍랑을 만날 때에도 믿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언제나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로에 광풍이 없기를 바라지만 실은 광풍은 제자가 믿음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사를 볼 때 매서운 광풍은 때마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의 광풍이 있었고, 중세교회는 권력과 결탁하여 세속화되는 광풍이 있었습니다. 근대 교회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광풍이 거세게 불어 닦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날까지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즐기치게 생명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아무리 광풍이 강해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물질주의의 광풍, 그리고 ‘코로나의 광풍’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교인수가 절반으로 줄어 들었고, 헌금도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들 또한 그동안 캠퍼스에 신천지로 웨방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양들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이제 그런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이상 캠퍼스 역사를 섬길 소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풍들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제 UBF포럼에서는 우리 역사에 과거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때 너무 겁을 먹고 두려워한 나머지 쇠국정책을 써서 일본의 지배를 받은 역사적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시대를 우리들 또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어서는 곤란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각자에게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렵다 끝났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으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광풍을 통해 두려움을 심고 있는 사단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난 자연현상만 보신 것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담겨있는 악의 세력을 보시고 영적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시니 사납던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7절도 다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본질이 누구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람 중에 특별한 분, 능력이 많으시고 탁월한 분 정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사건해결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III. 가져야 할 사랑(28-34)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헤치고 가버나움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막 광풍을 이겨내고 겨우 도착했는데 그들을 반겨준 자들은 귀신들린 두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지경으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난번 예수님이 물과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때 사람들은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했습니다. 이 물음에 귀신들은 여기에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과 또 하나는 ‘때가 이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괴롭게 될 것,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때가 되면 귀신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들을 상관하지 말아 달라, 이대로 내버려둬달라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들에게 최후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그날이 오기까지 세상 임금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자 합니다. 빛과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자, 저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한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마가복음을 보면 돼지 떼가 이천여 마리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자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자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초원에서 평화롭게 노닐던 돼지들이 일제히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사했습니다. 처던 사람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을 고하자,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귀신들린 두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가다라 지방의 문제아들을 사람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감격하며 잔치라도 벌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십시오. 온 시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주시도록 간구한 것은 돼지 때문이었습니다. 귀신들린 두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놀라운 역사임에 틀림이 없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는 돼지 한마디당 40만원이라치면 8억입니다. 한사람의 정신이 온전케 되는데 4억의 시간과 물질이 들어간다면 투자할만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한사람만을 돕기 위해 4억이라는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어떤 목자님은 아들이라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아들을 신천지에 빼앗겼다면 4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빼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아들처럼 여겨주십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각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주십니다. 자식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져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최고의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에 합당한 믿음과 영적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체험이 없어서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도 주시고 크고 작은 믿음의 체험도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을지라도 지금 제자의 믿음과 가치관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기관과 제자들 그리고 가다라 시내 사람들이 차례로 나오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지만 그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한껏 기대치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돌아서버린 서기관, 광풍을 체험하고 그가 누구인가 발견한 제자들,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떠나가기를 청한 가다라 사람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는 사람의 인정과 위로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아니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배척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제자생활의 가치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삶, 생명을 구원하는 목자가 사는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삶에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야 합니다. 거센 풍랑 같은 시련 앞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크신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믿음과 가치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